

진 술 서

성명	권태하 (한자:權台河)			성별	남 여
연령	40세 (1986.3.21 생)		주민등록번호	860321-1*****	
본적	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258-3				
주거	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123번길29, 3404-802				
	(통 반)	자택전화	010-7370-0747	직장전화	
직업	자영업	직장소재지	경기도 의정부시 둔야로 45번길 30 지층		

위의 사람은 피의자 이종석 에 대한 피의사건의 (피의자, 피해자, **목격자**, 참고인) (으)로서 다음과 같이 임의로 자필 진술서를 작성 제출함.

본인은 진술서 작성의 앞서 거짓 없이 사실만을 기재할 것임을 분명히 명시합니다.

2025년 6월 28일 토요일 오후 13시부터 대략 1시간 반 가량의 시간 동안 구리시 소재의 천성교회 2층 청년반(호실명)에서 목격한 장면과 피의자 (이종석)과의 대화 내용을 서술합니다.

저는 사건 당일 교회에서 점심을 먹고 13시경 청년반에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. 제 기준 왼편으로는 몇 명의 청년들이 앉아 있었고 오른쪽 싱크대 앞에는 김여진 (피해자)이 수전을 사용 중이었고 그 뒤에는 (피의자)이종석이 앉아 있었습니다. 잠시 후 이종석이 일어났고 김여진 뒤로 다가왔습니다. 그러다 쭈그려 앉았고 손에 들려 있던 핸드폰을 바닥에 내려 놓았습니다.

당시에 김여진은 치마를 입고 있었고 핸드폰에 위치는 김여진 치마 밑 다리 사이의 위치해 있었습니다. 그러다 몇 초 후 일어났습니다. 너무나 행동이 자연스럽고 순식간에 일어난 상황 이었고, 내가 지금 무엇을 본 거지? 라는 생각에 순간 당황을 하였고 잠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.

저는 교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일이 있었고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.

1시간 동안 생각을 하였고 내가 오해하는 상황일까?, 잘못 본건 아닐까? 수십 번 되내여 자문해 보았지만 핸드폰 위치가 너무나 병백히 정 중앙에 있었기에 오해 할 상황이 아니다. 그리고 확인해 봐야겠다. 생각 하였습니다.

이종석을 따로 옆 방으로 불러냈고 다음은 이종석과 30분 정도 대화를 나눴습니다.

저와 이종석은 친한 사이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대화도 거의 나뉘본 적이 없기에

이종석은 제가 불러내서 방 안쪽에 앉으라고 했을 때 매우 당황해 했습니다.

저는 이종석이 그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지가 궁금하여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.

다음은 대화 내용입니다.

나: 내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너 아까 싱크대 뒤에서 무슨 상황이었는지 나한테 설명해 줄 수 있어?

이종석은 계속 뜸을 들이며 대답을 못하다가 한참 후에 말을 했습니다.

이종석: 아... 그게 .. 형이 충분히 오해할 만한 상황이었어요. 그게 누구라도 오해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최근에 생긴 강박증 같은게 있는데요, 바닥에 뭐가 없는데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걸 꼭 주워야 해요. 근데 원래는 손에 아무것도 없이 줍는데 하필 그때 핸드폰이 들려 있었고 어쩔 수 없이 바닥에 핸드폰을 내려 놓고 줍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. 충분히 오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.

나: 그러니까 너 말은 갑자기 그런 강박증상을 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내려 댔는데 하필이면 우연히 그 위치가 여진이 치마 밑이라는 거잖아? 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?

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때부터 갑자기 자기가 호흡하기가 힘들다며 과호흡 증세를 토로 했습니다.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고 최근에 증세가 더 심해졌고 하필 오늘 아침에 커피를 마셔서 지금 더 힘들다. 라고 했습니다.

안절부절 가만히 있질 못하고 대화 하기를 매우 힘들어 했습니다.

나: 난 널 잘 모르고 이해 할 수 없고,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거든? 근데 여진이는 이것 이해할 수 있을까? 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?

이종석: 제가 이해 할 수 있게 잘 말을 해 봐야죠.

나: 어쨌든 네 말은 내가 지금 너를 오해하고 있다는 거잖아? 그럼 너한테 실례가 안된다면 내가 너 앨범을 한번 봐도 될까?

이종석: 아니요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.

나: 그래? 그럼 더 이상 말 할 필요가 없네 ?

그럼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 , 핸드폰이 너가 무엇을 하기 위한 어떤 도구로 사용이 되었니 ?

이종석: 아니요.

이렇게 대화는 종료됐고 . 저는 방을 나와 김여진의 남자친구인 최우태군을 불러 사실을 말하였고 혹시 모를 상황에 이종석을 잘 지켜보라고 했습니다.

더불어 청년반 담당 표한결 목사님에게 종석이의 멘탈이 지금 좋지 않으니 케어를 부탁한다고 전달을 하고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.